

### 제3절 농업생산자재 및 농업생산

#### 1. 농업생산자재

##### 1) 비료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최근에는 더구나 “다이옥신”이란 환경호르몬이 수입육류에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무공해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무농약 및 무화학비료의 재배법인 “유기농법”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비록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비싸지만 꾸준히 유기농재배 농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비료는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서 화학비료인 무기질비료와 퇴비 및 녹비 등 유기질비료의 2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유기질비료는 깻묵류, 퇴비, 녹비 및 가축분뇨 등이 포함된다. <표 258>은 연도별로 화학비료의 공급실적을 조사한 것이다.



<그림 47> 퇴비를 실은 경운기



<그림 48> 마을공동 퇴비장

<표 258> 연도별 화학비료의 공급실적

(단위 : M/T)

연별	성분별				
	계	질소질	인산질	加里질	기타
1970	1,818	1,215	394	209	-
1975	3,102	1,774	765	563	-
1980	2,742	1,410	730	602	-
1985	2,665	1,305	686	674	-
1990	3,129	1,563	753	813	-
1995	2,131	1,065	464	572	-

연별	성분별				
	계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기타
2000	2,256	1,273	455	528	-
2005	8,746	940	435	497	6,874
2008	10,894	633	212	303	9,746
2010	1,519	477	152	203	687
2011	2,228	534	199	245	1,250

연별	종류별								
	계	유안	요소	과석	중과석	용성인비	염화가리	복합비료	용과린
1970	-	-	-	-	-	-	-	-	-
1975	3,102	-	1,390			47	321	1,344	-
1980	5,722	50	1,689			200	117	3,232	434
1985	6,115	52	1,307	720	14	157	95	3,652	118
1990	6,138	121	1,481		1	32	119	4,355	29
1995	5,009	55	938	-	-	24	49	3,207	11
2000	8,927	50	1,179	-	-	9	35	4,298	13
2005	8,746	33	730	-	-	1	15	4,600	3
2008	10,894	28	454	-	-	2	13	10,396	1
2010	1,519	19	346	-	-	1	3	1,149	1
2011	1,724	21	381	-	-	2	4	1,313	3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2)

1970년부터 화학비료의 공급실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분별로 1975년에 3,102M/T의 공급실적을 나타낸 이후에 조금씩 감소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 와 다시 급증하여 2008년에 10,894M/T의 공급량을 기록함으로써 최대의 공급량을 기록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유기농 재배 농산물의 선호증가와 농업생산물의 감소로 화학비료의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비료공급량 조사가 중단될 만큼 감소하였다.

비료의 종류별 공급실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복합비료와 요소의 공급량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요소는 1980년 1,689톤이 공급된 이래 조금씩 감소되었으며, 복합비료는 2008년에 10,396M/T의 최대공급량을 나타낸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이였다. 그리고 인산질비료인 용성인비와 용과린은 1980년에 200톤과 434톤이 공급된 이래 급속히 공급량이 감소하였고, 가리질비료인 염화가리는 1975년에 321톤이 공급된 이래 공급량이 감소되어 최근에는

아주 소량만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회질소와 중과석은 1985년에 소량 공급되었다가 공급자체가 중단되었다.

## 2) 농약

환경의 오염과 곡물의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배되는 농작물에서는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된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의 종류는 약 3,300여 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수도작에서 발생하는 것이 160여 종으로 병해가 약 40여 종이고, 충해에 의한 피해가 12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병충해는 재배년도의 온도, 습도, 일조량 및 강수량 등의 기상조건에 따라 그 발생량이 다르다. 재배포장에 이와 같은 농약을 살포함에 따라 이러한 각종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논과 밭 그리고 기타 자연환경의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어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고, 농약으로 인한 사고와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주고 있다. <표 259>와 <표 260>은 연도별 농약의 공급실적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259> 연도별 농약공급실적

(단위 : M/T)

연별	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1970	10,380	4,488	3,461	1,482	949
1975	54,130	12,891	19,787	21,452	-
1979	27,808	11,496	11,457	4,855	-
1984	36,500	12,312	13,419	10,590	179
1985	33,423	11,171	10,998	10,986	268
1990	50,427	12,664	13,654	15,458	8,651
1991	-	-	-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1992)

&lt;표 260&gt; 연도별 농약공급실적

(단위 : M/T, 병)

연별	합계	수도용							제초제	원예용
		도열병	문고병	백엽고병	모엽고병	이화명충	벼멸구	종자 소독제		
2008	...	...	...	...	...	...	...	...	...	...
2009	82	20	6	1	1	10	8	4	20	12
2010	76	32	4	1	-	10	9	5	24	20
2011	8.7	0.3	1	1	-	1	0.9	0.5	3	1
2012	5.7	2	-	-	-	-	-	-	2.8	0.9
2013	37.0	2.0	-	-	-	-	0.2	3.0	19.8	12.0
2014	38.3	1.1	0.1	-	-	-	0.3	2.8	20.2	14.0
2015	45,304	2,013	95	-	-	-	7,135	2,439	20,736	12,886
2016	45,439	1,280	61	-	-	-	7,769	2,187	22,235	11,907
2017	45,585	603	31	-	-	-	8,630	2,094	21,556	12,671

\* 2014년부터 단위 “병”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09~2018).

농약의 연도별 공급량의 변화추이는 1975년에 특이하게 54,130톤의 농약이 공급되어 최대공급량을 나타낸 이후, 1979년에는 27,808톤으로 급속히 감소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1975년에는 살충제가 19,787톤, 제초제가 21,452톤이 공급되어 예년에 비하여 2배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lt;그림 49&gt; 1976년 단지별 공동 병충해 박멸 작업

1990년에는 전체의 농약공급량이 50,427톤으로 살균제는 예년과 비슷한 공급량이었지만, 제초제의 공급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농업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노동력의 절대부족 및 생력재배법을 이용한 영농법의 보급으로 논과 밭에서 인력을 이용한 제초작업 대신에 제초제를 대부분 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초제 계통에 속하는 농약들은 토양에 살포되었을 때 잔류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분해되어 소멸되지 않고 잔류되어 토양내의 유익한 미생물들의 번식을 방해하여 토양 오염을 가속화시켜 토양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최근에는 유기농법이라 하여 농약을 전



혀 살포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많아지고 있다.

1991년 이후 발표가 중단되었던 농약공급실적이 2009년부터 다시 수도용, 제초제, 원예용 등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농약공급량에서 제초제가 47~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원예용, 수도용 순이다. 이는 최근 농사의 감소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로 대부분의 제초를 농약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0> 무인헬기 농약 살포



<그림 51> 오리 농법

### 3) 농기계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농촌노동력이 부족하게 됐고, 부족한 농업노동력의 절대 부족에 대해 정부에서도 농기계 보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경작지의 정리와 농로 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낫, 호미, 삽, 쟁기 및 소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였으므로 주된 동력원은 사람과 소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 서서히 기계화 영농법이 추진되어 과거의 쟁기를 대신하여 경운기와 트랙터로 바뀌고, 최근에는 가장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모내기 작업이 이앙기로 대체되었으며, 낫을 이용하여 벼수확을 인력에 의존하였으나, 바인더, 콤바인으로 전환되어 수도작에는 기계화영농이 많이 이루어졌다. <표 261>~<표 263>은 연도별 및 읍·면별로 공급된 농기계의 보유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lt;표 261&gt; 연도별 농기계 보유상황의 변화

(단위 : 대)

연별	총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방제기	동력이앙기
2005	8,887	3,507	577	4	801	1,380
2010	8,291	3,047	718	6	250	1,301
2013	8,547	3,157	829	4	-	1,270
2014	7,253	2,487	787	23	-	965
2015	7,336	2,578	838	17	-	860
2016	8,118	2,759	985	5	-	1,132
2017	7,285	2,527	935	2	-	875

연별	관리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난방기
2005	632	132	346	438	1,001	69
2010	923	-	336	468	1,242	-
2013	1,022	-	384	488	1,393	-
2014	1,047	-	329	394	1,221	-
2015	1,102	-	332	400	1,209	-
2016	1,465	-	391	403	1,048	-
2017	1,309	-	337	389	911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06~2018)

&lt;표 262&gt; 연도별 농기계 보유상황의 변화

(단위 : 대)

연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방제기	양수기	탈곡기	건조기	파종기	원동기
1970	19	-	-	-	1,544	145	2,359	-	-	242
1975	296	1	-	-	3,599	89	2,151	-	4	244
1980	949	1	28	51	3,811	459	2,494	-	20	203
1985	1,892	18	20	51	3,001	962	2,020	2	46	305
1990	2,845	84	227	75	1,953	1,420	1,308	429	28	588
1995	3,530	186	825	408	2,357	1,866	973	729	128	*405
2000	3,887	439	1,425	540	2,035	1,604	334	1191	229	*531

- \*는 관리기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01)

&lt;표 263&gt; 읍·면별 농기계보유상황(2017년)

(단위 : 대)

지역별	총계	동력 경운기	농용 트랙터	스피드스 프레이어	동력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계	7,285	2,527	935	2	875	1,309	337	389	911
울진읍	878	360	96	-	93	179	34	65	51
평해읍	846	265	148	1	106	136	46	72	72
북면	1,018	433	148	1	162	96	35	40	103
금강송면	531	169	75	-	43	146	5	1	92
근남면	966	309	112	-	146	188	58	39	114
매화면	817	288	84	-	61	171	45	48	120
기성면	826	242	124	-	41	129	50	70	170
온정면	661	184	76	-	120	80	40	31	130
죽변면	484	173	40	-	72	120	15	17	47
후포면	258	104	32	-	31	64	9	6	12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8)

이농현상으로 농가의 노동력이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농업의 기계화·영농이 정부 시책과 함께 추진되어 왔다. <표 262>의 결과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경운기 19대, 방제기 1,544대, 양수기 145대, 인력탈곡기 2,359대 및 원동기 242대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이와 같은 농기계들은 작물경작에 필요한 농기계이기보다 운반 및 수확에 필요한 농기구들로서 기계화 영농과는 거리가 먼 농기계라고 볼 수 있다. 경운기의 보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3,887대까지 보급되어 대부분의 농가에서 경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경운기는 농산물 및 농업생산자재들의 운반수단 뿐만 아니라 경운기를 이용한 작물경작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류들이 개발되어 보급됨으로써 경운기를 이용한 각종 농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농기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양수기의 보유현황은 1975년 89대의 보유량으로 최저량을 나타낸 이후에 1985년 962대, 1990년 1,420대, 1995년 1,866대가 보급되어 꾸준히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수량이 답작 뿐만 아니라 전작물의 재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양수기의 보급대수는 수리불안 전답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울진군 지역의 작물재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탈곡기의 보유현황은 1980년까지는 2,494대의 보급실적을 나타낸 이후에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감소율이 심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부

터 답작물의 경우 주로 재배규모의 대형화와 재배가구수의 감소현상으로 인하여 보유대수가 점차 감소되었으며, 이후 콤바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건조기, 파종기 및 관리기 등의 보유현황은 주로 1980년 이후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보유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파종기 및 관리기 등은 기계화영농에서 중요한 농기계류에 속하므로 울진군의 지형에서 쌀 생산량의 측면에서 곡창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산림 및 해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트랙터 186대, 이앙기 825대, 수확기 408대가 보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관리기의 경우는 경운 및 각종 밭작물의 재배에 중요한 새로 개발된 농기계로서 2005년 632대, 2017년 1,309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농기계 보유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농산물 건조기의 보급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농촌 노동력이 날로 감소되는 지금 농기구의 보급은 많아야 한다.

읍·면별로 농기계 보유현황에서 북면이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평해읍보다 많은 1,0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를 다른 읍·면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근남면이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기와 콤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성면은 곡물건조기와 농산물건조기를 타 읍·면 보다 많은 편이다.



<그림 52>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지소

## 2. 농업생산

### 1) 식량작물의 생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작물은 미곡류, 맥류, 잡곡류, 두류 및 서류로 분류된다. 미곡류에 논벼 및 밭벼, 맥류에 겉보리 및 밀, 잡곡류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 기타 잡곡, 두류에 콩, 팥, 녹두 그리고 서류에는 고구마 및 감자가 속한다. 본 군의 1970년 이래 연도별 식량작물의 생산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64>와 같다.

<표 264> 연도별 식량작물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미곡		맥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11,584.1	22,603.8	4,005	12,360	3,218	6,360
1975	11,484.7	26,142.3	4,279	13,139	3,332	6,379
1979	10,714.7	26,460.4	4,548	24,012	2,354	5,328
1986	6,351.1	16,969.6	3,922	12,569	513	1,139
1990	6,435.8	26,825.3	4,080	18,768	536	1,715
1996	4,848.0	21,290.0	3,425	16,272	117	292
2000	5,004.4	23,927.3	3,732	17,516.0	103.0	220.4
2005	4,341.5	23,213.0	3,260	16,206.0	72.5	181.0
2010	3,557.1	20,037.6	2,737	13,850.0	50.7	139.8
2013	3,054.7	17,760.0	2,455	12,667.0	15.8	33.9
2014	3,010.9	17,499.0	2,462	12,679.3	14.2	26.6
2015	2,856.9	16,801.0	2,540	13,208.0	26.3	48.7
2016	2,836.7	16,577.2	2,478	12,885.6	31.7	58.8
2017	2,885.9	16,545.1	2,430	12,246.0	22.0	42.0

연별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2,159	2,190	1,186	1,080	1,014	12,212
1975	-	-	1,655	1,780	1,072	17,585
1979	263	508	1,998	2,691	1,550	16,691

연별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86	150	333	1,496	1,894	276	1,035
1990	214	433	1,414	2,337	192	801
1996	188	660	978	1,453	140	2,715
2000	26.8	513.9	725.1	981.0	217.5	4,696.0
2005	251.0	680.0	496.0	688.0	262.0	5,458.0
2010	119.9	331.4	396.5	596.4	253.0	5,120.0
2013	178.0	346.6	239.1	378.5	166.8	4,334.0
2014	153.2	315.3	220.5	322.8	161.0	4,155.0
2015	87.7	182.5	70.3	124.7	132.6	3,237.1
2016	113.6	325.3	70.4	122.5	143.0	3,185.0
2017	133.0	292.3	150.1	237.1	150.8	3,727.7

출처 :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울진통계연보』, (1971~2018)

1970년 이후 2017년까지 전체 식량작물들의 재배면적은 매우 큰 폭으로 감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량작물의 전체 생산량은 1990년대 이후에 소폭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재배면적에 비하여 매우 적은 양의 감소를 나타내어 식량작물의 전체 생산량 규모로 볼 때에는 생산성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본 군에는 미국 중 발벼의 재배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생산량은 논벼의 생산량으로 그 현황은 1979년에 최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나타내었으나 1979년 이후에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비교적 많은 감소를 나타내었다.

맥류의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인 1975년에 3,332ha에 6,379톤의 생산량을 나타낸 이후에는 급속히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맥류의 재배면적과 생산실적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잡곡류 생산량은 1970년 2,190톤 이후 급감하다가 2000년대 이후 건강식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두류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류의 생산현황은 다른 식량작물의 변화양상과 차이가 있다. 즉 1979년까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다가 1980년 이후에는 재배면적, 생산량 모두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감소되는 비율은 다른 식량작물들의 감소율 보다 미미하였다. 이는 기계화영농이 어렵고 노동력이 논 작물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가공식품들이 한국인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성인병을 예방하여 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1) 미곡류의 생산

미곡류에는 논벼 및 밭벼가 속하지만 군내에는 밭벼에 대한 생산량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밭벼가 재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논벼의 재배면적, 10a당 수량 및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265>와 같다.

<표 265> 미곡(논벼)의 생산현황

(단위:ha, M/T)

연별	재배면적	생산량	10a당 생산량
1989	4,279	18,876	441
1990	4,080	18,768	460
1995	3,510	15,369.0	435
2000	3,732	17,516.0	470
2005	3,260	16,206.0	497.1
2010	2,737	13,850.0	506.0
2013	2,455	12,667.0	516.0
2014	2,462	12,679.3	515.0
2015	2,540	13,280.0	520.0
2016	2,478	12,241.3	494.0
2017	2,430	12,246.0	504.0

출처 :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울진통계연보』, (1989~2018).

1970년 울진군 전체 식량작물 생산 면적 11,584.1ha 중에서 미곡생산은 4,005ha로 34.5% 수준이었으며, 생산량은 22,603.8M/T 중 12,360M/T로 54.7%를 차지하였다. 반면, 2017년에는 면적 2,885.9ha 중 미곡은 2,430ha로 84.2%, 생산량은 16,545.1M/T 중 12,246M/T로 74.0%를 차지하여 울진군의 식량작물 생산이 미곡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곡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변화를 보면 1970년 4,005ha에서 2017년 2,430ha로 60.7%



<그림 53> 기계화된 모내기 장면(이양기)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1970년과 2017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비료와 농약공급의 확대, 생산의 기계화 등으로 ha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0ha당 생산량을 보면 1990년 460M/T에서 2015년 520M/T로 1.13배 증가하는 등 ha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4> 트랙터 추수

## (2) 맥류의 생산

맥류에는 대맥류에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가 있으며, 소맥류에는 밀과 호밀이 있다. 1970년이래 군내에서 쌀보리는 생산되지 않다가 2013년부터 다시 생산되고 있으며, 호밀은 1975년 이후 생산되지 않고 있다. 겉보리와 쌀보리, 밀, 호밀의 연도별 생산현황은 <표 266> 과 같다.

<표 266> 연도별 맥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3,218	6,360	-	4,733	-	-	-	699	-	51
1975	3,332	6,379	2,915	5,714	-	-	388	628	30	36
1979	2,354	5,328	2,055	4,685	-	-	299	643	-	-
1986	513	1,139	513	1,139	-	-	-	-	-	-



연별	합계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0	536	1,715	536	1,715	-	-	-	-	-	-
1995	152	383	129	326	-	-	-	-	-	-
2000	103.0	220.4	103.0	220.4	-	-	-	-	-	-
2005	72.5	181.0	72.5	181.0	-	-	-	-	-	-
2010	50.7	139.8	25.7	64.8	-	-	25.0	75.0		
2013	15.8	33.9	12.6	26.5	1.7	3.9	1.5	3.5	-	-
2014	14.2	26.6	11.4	20.6	1.5	3.1	1.3	2.9	-	-
2015	26.3	48.7	25.0	45.3	1.0	2.7	0.3	0.8	-	-
2016	31.7	58.8	28.1	51.0	3.3	7.0	0.3	0.8	-	-
2017	22.0	42.0	19.3	35.8	1.9	4.2	0.8	2.0	-	-

출처 :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울진통계연보』, (1971~2018)

맥류의 연도별 생산량은 1970년 6,360M/T에 상당하던 맥류의 생산량이 2017년에는 겨우 42M/T에 불과하여 매년 급격하게 감소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보리의 경우 1970년대에는 주식(主食)인 쌀의 부족으로 보리쌀이 부족한 쌀을 보충하여 식량공급을 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쌀이 충분히 공급되고,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 식생활에서 보리밥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보리쌀의 소비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는 이농현상이 심각하여 경작을 포기하는 밭이 많이 생기기도 하였다.

쌀보리는 2012년 1.0ha에 2.3M/T의 생산을 시작으로 2016년 7.0M/T를 생산하는 등 최근 소량이지만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맥인 밀의 재배는 1979년까지 소량 재배되었지만 1980년 이후에는 전혀 재배되지 않다가 1995년에 우리 밀에 대한 가공식품이 새로 개발되고 “우리밀 사랑운동”이 전개되어 소량 재배되었지만 그 면적은 미미하였다. 그리고 호밀의 재배는 1975년까지 소량 재배되었다가 사라졌고 맥주보리의 재배는 없었으며, 보리의 경우에는 보리 전분이 당뇨병 등 성인병의 예방식품으로 주목을 받음으로써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보리밥 및 각종 채소류를 이용한 전문식당이 많이 생겨나 성업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제과·제빵분야에서 보리를 이용한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되어 보리의 재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 (3) 잡곡류의 생산

보리 및 밀 등 맥류에 못지않게 최근 성인병 예방 건강식품으로 주목되는 작물은 조, 옥

수수, 수수 및 메밀 등의 잡곡류에 속하는 작물이다. 이들에 대한 1970년 이래 연도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267>과 같다.

<표 267> 연도별 잡곡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2,157	2,190	2,064	2,010	69	5	642	77	-	-	-	-
1975	1,146	1,013	1,027	922	16	10	52	51	28	16	-	-
1979	263	508	20	30	6	7	78	240	35	37	63	134
1986	150	333	-	-	-	-	-	-	-	-	-	-
1990	214	433	16	20	7	11	65	266	50	51	76	84
1995	166.0	558.0	5.0	6.7	2.0	2.6	105.0	405	35.0	39.0	19.0	20.0
2000	226.8	513.9	50.0	57.3	2.0	1.0	83.6	354	11.2	14.6	80.0	87.0
2005	251.0	680.0	24.0	25.0	10.0	10.0	129.0	555	25.0	25.0	63.0	65.0
2010	119.9	331.4	15.0	21.0	1.6	1.9	70.3	268	8.0	7.7	25.0	32.8
2013	178.0	346.6	-	-	-	-	48.0	180	2.0	2.0	128.0	164.5
2014	153.2	315.3	-	-	-	-	40.0	158	2.2	2.3	111.0	155.0
2015	87.7	182.5	-	-	-	-	20.9	84.5	2.4	2.6	64.4	95.4
2016	113.6	325.3	-	-	-	-	60.5	190	5.2	5.3	47.9	130.0
2017	133.0	292.2	-	-	-	-	42.3	153	2.9	3.0	87.8	136.2

\* 2014년부터 “조”, “수수”는 기타로 분류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조, 수수, 옥수수 등 잡곡류는 골고루 소량씩 재배되었다. 그 중에서도 조의 생산량은 1970년에는 2,064ha의 재배면적에 2,010톤이 생산되어 군민의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또한 수수의 생산 역시 급격히 감소되다가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옥수수의 생산량은 재배면적은 줄어 들었지만 생산량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555M/T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잡곡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옥수수를 이용한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되고 우량 다수확 품종이 보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메밀의 생산량도 감소는 하였지만 최근 일정량의 생산량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메밀은 최근에 식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인병 예방식품으로 알려져 그 소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재배농민들의 주요 소득작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4) 두류의 생산

연도별 콩, 팥, 녹두 등 두류에 속하는 작물들의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은 <표 268>과 같다.

<표 268> 연도별 두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콩		팥		녹두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1,865	1,080	1,183	1,027	424	35	38	2	-	-
1975	1,655	1,780	1,317	1,488	186	165	101	93	-	-
1979	1,998	2,690	1,820	2,489	88	108	25	25	-	-
1986	1,496	1,893	1,243	1,602	50	56	6	6	196	275
1990	1,413	2,337	1,292	2,192	74	94	5	6	42	45
1995	1,134	1,752	1,075	1,688	48	51	-	-	11	13
2000	725.1	981.0	590.0	848.0	26.6	19.5	0.5	0.5	108.0	113.0
2005	496.0	688.0	423.0	614.0	25.0	25.0	4.0	4.0	44.0	45.0
2010	396.5	596.4	387.0	582.0	8.5	13.2	1.0	1.2	-	-
2013	239.1	378.5	230.0	368.0	3.1	3.3	0.5	0.6	5.5	6.6
2014	220.5	322.8	210.0	311.0	2.6	2.9	0.1	0.1	7.8	8.8
2015	70.3	124.7	67.6	121.7	2.6	2.9	0.1	0.1	-	-
2016	70.4	122.5	66.0	117.0	1.7	2.0	0.5	0.5	2.2	3.0
2017	150.1	237.1	143.4	229.4	2.5	2.8	0.3	0.3	3.9	4.6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1970년 이래 연도별 두류의 생산량은 199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감소되었다. 콩의 경우에는 된장 및 고추장 등의 장류 발효식품이 삼국시대부터 우리민족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 중요한 식품으로 그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콩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1990년대 이후에 감소되고 있지만, 콩 및 팥의 생산량은 타 작물에 비해서는 그 감소폭이 적은 편이며, 두류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 가공식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녹두의 재배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정책으로 부족한 각종 두류들은 중국 및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되어 우리의 전통식품인 된장, 고추장 및 간장 등의 장류의 발효

식품제조를 위한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5) 서류의 생산

1975년 이래 감자, 고구마 등이 속하는 서류의 연도별 생산현황은 <표 269>와 같다. 서류에 속하는 농작물로는 감자와 고구마가 있다. 특히 울진지역은 지형적으로 감자의 재배적으로 평가되지만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나라 감자의 주산지인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감자에 비하여 품질과 수량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배면적의 확대에는 무리가 있다.

1979년에는 감자의 재배면적이 1,200ha에 달하여 11,385톤이나 생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되어 최근에는 3천톤 내외만이 생산되고 있다.

<표 269> 연도별 서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고구마		감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5	1,072	17,584	157	2,855	914	14,729
1979	1,550	16,691	350	5,306	1,200	11,385
1985	275	4,731	74	1,275	201	3,457
1990	192	3,660	51	882	141	2,778
1995	153.0	2,777.0	41.0	728.0	112.0	2,049.0
2000	217.5	4,696.0	54.8	550.0	162.7	4,146.0
2005	262.0	5,458.0	51.0	816.0	211.0	4,642.0
2010	253.0	5,120.0	43.0	510.0	210.0	4,610.0
2013	166.8	4,334.0	21.8	284.0	145.0	4,050.0
2014	161.0	4,155.0	21.0	275.0	140.0	3,880.0
2015	132.6	3,237.1	22.6	300.1	110.0	2,937.0
2016	143.0	3,185.0	23.0	305.0	120.0	2,880.0
2017	150.8	3,727.7	22.1	291.0	128.7	3,436.7

출처 :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울진통계연보』, (1976~2018)

고구마의 생산량 역시 1979년에 350ha에서 5,306톤이 생산되어 최고의 생산량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고구마 및 감자는 1980년대 이전에 농촌생활이 어려웠을 때에는 봄철에는 쌀 등의 곡물이 부족하여 감자 및 고구마들을 식사대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식생활습관의 자체가 변화되어 감자 및 고구마들은 소량으로만 소비되고 대부분의

생산량은 식품공장에서 과자류의 가공식품으로 개발되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 2) 채소류의 생산

채소류는 한국인 식생활의 반찬류에서 가장 중요한 김치의 재료인 배추와 무, 그리고 조미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추 및 마늘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채소류는 과채류[수박, 참외,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딸기], 엽채류[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치, 미나리, 우엉], 근채류[무, 당근] 및 조미채류[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로 분류된다.

### (1) 연도별 채소류의 생산현황

채소류들의 연도별 생산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270>~<표 273>과 같다.

<표 270> 연도별 과채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도	합계		수박		참외		오이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103.1	1,004.3	9.6	142.0	12.9	108.2	5.4	47.3
1975	151.8	2,138.5	22.8	473.0	10.3	106.2	7.1	86.5
1980	43.8	1,076.2	19.2	505.0	3.0	45.1	13.5	345.8
1985	41.5	1,386.7	24.3	480.0	9.8	186.3	2.4	59.5
1992	20.5	446.3	15.9	355.0	0.5	10.0	1.4	37.0
1995	23.0	581.0	18.7	456.0	0.5	20.0	1.1	49.0
2000	20.7	587.0	10.8	299.0	1.3	19.0	2.4	90.0
2005	17.2	716.0	6.0	222.0	0.5	16.0	1.0	103.0
2010	12.9	328.6	3.2	83.0	0.2	3.8	0.5	15.0
2013	10.8	296.0	1.9	41.0	-	-	0.8	22.0
2014	8.7	218.2	1.5	31.0	-	-	-	-
2015	9.7	380.2	0.4	14.7	0.4	10.5	-	-
2016	10.4	374.5	3.1	110.0	0.1	2.5	0.7	19.0
2017	9.9	317.1	1.7	49.2	0.1	3.2	0.4	10.2

연별	호박		가지		토마토		딸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68.0	646.0	3.1	23.8	4.1	36.9	-	-
1975	97.0	1,281.0	4.5	37.8	10.1	153.6	-	-
1980	1.0	12.0	1.6	22.4	5.5	145.9	2.9	11.6
1985	1.8	25.0	-	-	3.2	100.4	3.1	34.5
1992	2.1	35.0	-	-	0.4	7.5	0.2	1.6
1995	1.0	22.0	-	-	1.0	26.0	0.7	8.0
2000	3.2	66.0	-	-	2.1	94.0	0.9	19.0
2005	3.0	119.0	-	-	2.7	148.0	4.0	108.0
2010	2.4	43.0	0.4	11.8	3.2	137.0	3.0	35.0
2013	1.3	20.0	1.4	39.0	3.5	150.0	1.9	24.0
2014	1.0	14.9	-	-	3.1	131.0	3.1	41.3
2015	0.3	8.0	-	-	3.1	197.2	5.5	149.8
2016	1.0	15.0	0.2	5.0	3.1	190.0	2.3	33.0
2017	0.9	14.5	0.4	11.0	3.2	167.0	3.2	62.0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lt;표 271&gt; 연도별 근채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무		당근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193	2,320	193	2,320	-	-
1975	210	2,748	210	2,748	-	-
1980	97	4,047	96	4,017	1.5	30
1985	138	4,862	111	4,345	27.4	517
1990	117	3,717	887	3,337	28.4	380
1995	230	7,546	160	6,129	70.0	1,432
2000	91.3	3,042	80.4	2,846	10.9	196.0
2005	35.5	219.0	28.0	84.0	7.5	135.0
2010	31.0	892.0	28.5	841.0	2.5	51.0
2013	11.3	346.8	11.0	340.0	0.3	7.0

연별	합계		무		당근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14	11.9	360.0	11.5	351.0	0.4	9.0
2015	15.8	465.4	15.5	455.7	0.3	9.7
2016	28.6	1,670.0	26.0	1,600.0	2.6	70.0
2017	17.0	710.6	16.0	686.7	0.9	23.9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표 272> 연도별 조미채소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고추		마늘		파		양파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222	856	131	272	74	398	5.2	45	11.5	140
1975	406	1,389	235	361	139	607	11.8	130	20.5	291
1980	773	2,564	504	569	254	1,665	6.8	170	8.0	160
1985	909	2,770	665	810	223	1,405	16.4	439	4.0	115
1992	519	2,480	349	683	158	1,355	5.6	126	5.9	316
1995	509.6	2,479	359.0	682	136.0	1,224	9.0	243	5.6	330
2000	514.9	3,869	388.8	972	85.3	853	7.0	161	33.8	2,028
2005	482.1	1,196	396.0	792	51.0	76	5.8	182	29.3	146
2010	267.0	1,795.2	187.0	543.0	41.0	310	13.0	168.2	26.0	774.0
2013	462.3	3,696.0	390	1,006.0	24.0	205	6.0	53.0	42.3	2,432.0
2014	454.8	3,179.0	393	1,044.0	23.0	195	5.5	45.0	33.3	1,895.0
2015	295.9	4,237.4	241	1,396.2	10.6	135	4.7	121.0	40.0	2,585.2
2016	462.5	4,803.0	380	1,310.0	13.0	151	4.5	52.0	65.0	3,290.0
2017	418.8	3,978.7	351	1,189.0	17.6	171.5	5.2	67.7	45.1	2,550.5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lt;표 273&gt; 연도별 업체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배추		시금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5	194.6	2,611.0	192.2	2,574.7	-	-
1980	105.4	7,754.0	97.0	7,595.0	2.3	24.0
1985	103.0	6,663.0	90.0	6,403.9	4.8	65.4
1992	83.9	5,186.3	79.0	5,089.0	1.2	13.3
1995	138.8	8,381.0	131.5	8,261.0	1.0	10.0
2000	129.5	6,693.0	125.7	6,569.0	1.4	21.0
2005	43.6	1,779.0	38.0	1,634.0	1.0	18.0
2010	130.3	3,306.0	118.0	3,128.0	5.5	64.0
2013	56.8	1,513.5	52.0	1,450.0	0.1	1.0
2014	59.5	1,603.0	55.4	1,555.0	-	-
2015	41.7	1,374.0	40.0	1,336.0	-	-
2016	64.4	3,488.0	62.1	3,450.0	-	-
2017	55.9	2,109.8	52.4	1,947.7	-	-

연별	양배추		상추		미나리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5	1.8	36.9	-	-	-	-
1980	2.1	58.8	2.0	27.0	2.0	50.0
1985	2.1	77.5	6.1	116.3	-	-
1992	0.8	32.0	2.9	52.0	-	-
1995	1.1	42.0	4.7	63.0	0.5	5.0
2000	0.4	20.0	5.2	67.0	0.8	16.0
2005	0.8	30.0	3.5	92.0	0.3	5.0
2010	0.8	25.0	5.2	68.0	0.8	21.0
2013	0.5	13.5	4.2	490.0	-	-
2014	-	-	4.1	48.0	-	-
2015	-	-	1.5	33.3	0.2	4.7
2016	-	-	1.7	25.0	0.6	13.0
2017	-	-	2.9	149.1	0.6	13.0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채소류의 연도별 생산현황의 변화추이는 과채류와 근채류를 제외하고는 식량작물에 비하여 감소율이 비교적 적은 경향이며, 조미채소류는 오히려 면적과 생산량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채소류 중에서 조미채소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제일 많이 차지하였다. 특히 양파가 포함되어 있는 조미채소류의 생산현황의 변화추이는 1995년 이후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는 4,803.0M/T이 생산되어 연간 최대생산량을 나타내었다.

과채류의 생산은 1975년 151.8ha 면적에 2,138.5M/T 생산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9.9ha 면적에 317.1M/T만 생산되어 면적은 9.6%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1,004.3M/T에서 317.1M/T로 31.6%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전의 과채류 생산에서는 수박이 면적과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토마토가 가장 큰 생산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참외와 가지가 과채류 생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미약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5> 금강송면 쌍전리 고랭지 배추재배

엽채류 생산은 1995년 138ha 면적에 8,381.0M/T의 생산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점점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엽채류 생산에서 배추생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2017년 생산에서 면적으로는 93.7%를, 생산량은 92.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금치와 양배추의 생산은 크게 감소하여 2014년 이후 생산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줄었다.

근채류 또한 1995년을 기점으로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최근 다소 증가하였지만 2017년의 생산은 1995년에 비해 면적은 7.4%, 생산량은 9.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채류 생산에서 무의 생산이 면적과 생산량에서 각각 94.1%와 96.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당근의 생산은 5% 내외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울진군 채소류 생산에서는 조미채소류가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면적은 가장 넓었던 1985년 909ha에 비해 2017년에 418.8ha로 46.1%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재배기술의 발달, 생산방식의 기계화 등으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4,803.0M/T가 생산되어 면적이 가장 넓었던 1985년에 비해 143.6% 증가하였다. 조미채소류 중 생산면적은 고추가 2017년 전체 면적 중 8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생산량은 양파가 전체 생산량 중 6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마늘과 파는 1985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6> 미나리 단지

### 3) 과실류의 생산

#### (1) 연도별 과실류의 생산현황

울진지역은 동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와 같이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과실류의 특산물은 없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경북 북부지방에 사과의 재배면적이 확대됨과 함께 우리 군내에서도 사과를 비롯한 과실류의 재배면적이 증가되었다. 1970년 이래 과실류의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274>와 같다.

<표 274> 연도별 과실류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사과		배		복숭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55.5	422.5	24.5	258.0	7.3	48.4	9.7	46.7
1975	114.3	674.9	77.1	440.0	9.2	70.3	19.7	120.9
1979	162.4	1,018.2	77.1	438.1	9.0	75.0	19.0	154.1
1986	109.5	587.1	58.5	389.6	9.6	50.6	8.0	48.4
1990	111.3	657.3	32.7	291.7	1.5	28.5	5.9	46.1

연별	합계		사과		배		복숭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5	90.3	605.0	20.7	228.0	2.0	16.0	5.0	50.0
2000	78.1	539.0	9.6	144.0	4.2	42.0	1.4	21.0
2005	57.5	257.5	1.6	26.0	4.2	60.0	0.3	4.0
2010	81.0	566.5	3.3	3.3	3.9	38.0	0.5	7.6
2013	94.5	707.2	5.1	87.0	0.6	13.0	0.0	0.0
2014	101.9	710.9	3.7	47.9	0.5	9.3	0.6	2.0
2015	104.4	712.7	2.8	30.6	0.5	9.5	0.4	1.6
2016	108.9	638.0	6.4	57.0	1.5	8.5	1.2	16.5
2017	102.4	692.2	4.5	55.6	0.8	10.1	0.5	5.0

연별	포도		감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2.0	7.9	6.6	42.8	5.4	18
1975	4.7	22.4	3.3	18.3	0.3	3
1979	5.0	28.7	47.2	298.6	-	-
1986	1.0	5.2	7.5	36.0	24.9	57
1990	1.8	14.5	27.4	97.4	42.0	179
1995	2.0	13.0	54.0	267.0	7.9	390
2000	1.0	12.0	250.0	199.0	37.0	121
2005	0.1	1.5	1.1	10.0	50.2	156.0
2010	0.1	1.6	38.7	398.0	37.5	118.0
2013	-	-	37.0	395.0	51.8	212.2
2014	-	-	42.2	429.0	54.9	222.7
2015	-	-	43.5	449.0	57.2	222.0
2016	-	-	43.3	393.0	56.5	163.0
2017	-	-	41.5	416.5	55.1	205.0

\* 2014년부터 “자두”는 기타로 분류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0~2018)

연도별 생산현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아직 이농현상이 심화되지 않았던 1979년에는 162.4ha에서 1,018.2M/T이 생산되어 최고의 생산량을 보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이농현

상으로 재배농민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였다. 이는 과실류의 재배로 인한 농가소득의 향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과실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증가에는 감의 생산증가가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 이후 단감에 대한 소비량이 매우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90년도 이전의 울진군 과실류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사과는, 기후변화 등으로 사과의 주 생산지가 기온이 낮은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였다.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75년과 비교하면 2017년의 재배면적은 5.8%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12.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배와 복숭아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포도는 201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수준이다. 반면 감은 단감의 선호 등에 의해 2010년 이후 안정적인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울진군 과실류 생산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 4) 특용작물의 생산

일반 조미료로 많이 쓰이는 참깨, 들깨 및 땅콩 등과 약용작물들은 특용작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약용작물들의 재배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용작물들은 특용작물에서 구분한다. 약용작물을 제외한 특용작물들의 1970년 이래 생산현황은 <표 275>와 같다.

<표 275> 연도별 특용작물의 생산현황

(단위 : ha, M/T)

연별	합계		면화		참깨		들깨		땅콩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251.4	222.6	52.6	42.2	31.5	13.7	39.2	15.5	-	-
1975	252.7	175.9	53.3	46.6	61.6	30.7	64.3	39.4	-	-
1979	196.0	165.9	37.0	23.7	78.6	39.6	69.0	43.2	-	-
1986	130.4	84.1	-	-	121.3	74.4	2.2	2.1	6.9	7.6
1990	137.3	93.6	0.2	0.2	124.3	72.2	4.0	3.0	8.8	18.1
1995	46.7	27.0	-	-	42.6	22.0	-	-	4.1	5.0
2000	47.0	38.0	-	-	44.6	34.0	-	-	2.4	4.0
2005	52.6	32.0	-	-	43	23	7.5	5.6	2.1	3.4
2010	36.4	30.6	-	-	24.0	19.2	11.8	10.2	0.6	1.2

연별	합계		면화		참깨		들깨		땅콩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13	37.2	29.0	-	-	24.0	19.0	12.3	8.1	0.9	1.9
2014	33.8	26.2	-	-	22.0	17.0	11.1	7.7	0.7	1.5
2015	30.7	24.7	-	-	15.4	8.8	14.7	14.3	0.6	1.6
2016	40.7	34.1	-	-	22.0	8.8	14.7	14.3	4.0	11.0
2017	35.5	28.5	-	-	20.8	13.4	13.2	11.1	1.5	4.0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울진군의 특용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특히 1990년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용작물의 종류에서도 면화, 참깨, 들깨 및 땅콩 등이 주로 재배되었다. 특히 면화는 1979년까지 소량 재배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재배가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향으로 판단되며, 최근까지 비교적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작물은 참깨와 들깨이다. 2017년 현재 참깨의 생산은 특용작물 생산면적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47.0%를 차지하고 있다. 땅콩은 1986년 이후에 주로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약용작물의 생산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한방의료 및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약용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농산물수입 자유화정책으로 중국산 한약재가 많이 수입되어 약용작물의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 약용작물의 생산현황을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276>과 같다.

<표 276> 연도별 약용작물의 생산현황

(단위 : m<sup>2</sup>, kg, t)

연별	합계		지황		인삼		당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11.9	20.0	0.5	0.98	-	-	2.3	4.3
1975	9.5	18.5	-	-	171	-	28.2	70.5
1984	90.3	156.3	1.5	3.8	166	10	27.7	55.4
1985	120.2	244.9	0.9	2.7	-	-	-	-
1990	97.7	271.9	1.0	3.0	-	-	39.7	150.4
1997	96.5	155.7	-	-	-	-	16.4	13.3

연별	백작약		황기		천궁		백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0.4	0.6	0.9	1.2	4.4	3.95	-	-
1975	2.0	3.6	-	-	-	-	-	-
1984	6.0	10.7	13.9	21.6	24.9	48.3	-	-
1985	5.2	9.6	13.8	24.0	23.7	48.0	-	-
1990	0.6	6.0	7.5	13.2	5.9	16.2	-	-
1997	2.7	14.2	2.5	2.4	1.9	4.4	0.9	1.6

연별	도라지		시호		두충		방풍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	-	-	-	-	-	-	-
1975	2.1	6.1	-	-	-	-	-	-
1984	-	-	11.3	9.9	-	-	5.0	6.6
1985	26.5	56.1	15.8	17.2	-	-	3.3	4.4
1990	-	-	14.7	15.7	-	-	1.5	2.5
1997	23.5	46.9	9.6	13.0	34.7	28.0	1.5	2.4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1998).

울진군은 기상 및 토양환경이 강원도와 유사하여 야생 약용작물이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적을지라도 많은 종류의 약용작물을 재배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생산량이 적었지만 1980년대에 타 식용작물들의 생산량은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약용작물들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오히려 1980년대에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 이후에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한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한약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산 한약재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값이 싼 중국산 한약재가 많이 수입되어 국산한약재는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경쟁력을 잃게 되어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판단



<그림 57> 해방풍 재배

되지만 전체적인 한약재의 소비량은 계속하여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년 발표되는 한약재의 수입량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한약재 재배농민 보호와 국민건강의 보호 차원에서 한약재 유통구조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울진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약용작물들은 지황, 백작약, 황기, 당귀, 천궁, 백지, 도라지, 시호, 두충 및 방풍들이 재배되고 있다. 약용작물의 대명사인 인삼은 1975년과 1986년에 소량 재배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재배가 중단되었다. 특히 울진지역에서 생산된 황기, 당귀, 천궁 및 백지의 품질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학계에서도 평가하고 있다.

### 3. 추곡 및 하곡의 수매

#### 1) 공공비축 미곡 매입실적

식량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이른바 “이중곡가제”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매년 하곡수매[보리] 및 추곡수매[벼]를 실시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연도별 공공비축 미곡 매입 실적 및 2017년의 읍·면별 실적을 조사한 결과는 <표 277>, <표 278>과 같다.

<표 277> 읍면별 공공비축 미곡 매입실적

(2017년, 단위 : 천kg)

읍면별	실적	등급별				종류별		
		특등	1등	2등	3등	잠정등외	일반매입	기타(회수)
계	2,748	762	1,949	37	-	-	2,748	-
울진읍	296	50	221	25	-	-	296	-
평해읍	729	325	404	-	-	-	729	-
북면	50	12	38	-	-	-	50	-
금강송면	3	-	3	-	-	-	3	-
근남면	384	86	294	4	-	-	384	-
매화면	370	52	318	-	-	-	370	-
기성면	475	136	339	-	-	-	475	-
온정면	244	52	187	5	-	-	244	-
죽변면	113	30	83	-	-	-	113	-
후포면	84	19	62	3	-	-	84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8)

&lt;표 278&gt; 공공비축 미국 매입실적

(단위: kg, 천kg)

연별	실적	등급별				종류별		
		특등	1등	2등	3등	잡정등외	일반매입	기타(회수)
1970	4,501	-	-	-	-	-	3,471	1,030
1975	22,082	-	-	-	-	-	25,380	-
1980	279	-	66	112	79	22	179	-
1985	3,526	-	2,349	1,136	41	-	3,231	296
1990	3,637		3,036	587	14	-	3,636	1
1995	4,749	-	4,296	445	9	-	4,750	-
2000	4,423	-	4,025	387	12	-	4,424	-
2005	3,390	626	2,415	338	10	-	3,390	-
2010	1,304	220	1,020	60	2	-	1,304	-
2013	1,208	336	857	15	-	-	1,208	-
2014	2,126	382	1,660	77	7	-	2,126	-
2015	1,994	355	1,503	135	1	-	1,994	-
2016	1,971	344	1,323	93	1	-	1,762	-
2017	2,748	762	1,949	37	-	-	2,748	-

\* 1985년부터 단위 천kg

\*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함.

출처: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1970년의 추곡 수매량이 4.5톤이었으나, 1985년에는 3,526천kg, 1995년에는 4,749천kg으로 1985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수매실적을 나타내었다. 이후 매입실적은 점점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도 2,748천kg의 매입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품질등급에서도 1등급 수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등급 및 등외의 수량은 1990년대 이후에 특히 감소되었다. 또한, 1990년 이후에는 수매전량을 일반매입으로 수매하였으며, 회수 등의 기타 방법의 수매는 단절되었다.



**“벼” 검사 규격 안내**

**1. 검사 규격**  
가. 알곡 중량: 54<sup>g</sup>~500<sup>g</sup>  
나. 모양 자체: 새가마니 또는 원뿔 쓴 가마니  
다. 포장 방법: 새로 3개소기로 1개소각 두들김 묶음  
라. 등: (우도함묵)

종류	등	알곡중량	수분	외래입	이온
일반	1 등	79 <sup>g</sup>	16 <sup>%</sup>	2 <sup>%</sup>	0.2 <sup>%</sup>
	2 등	77 <sup>g</sup>	16 <sup>%</sup>	4 <sup>%</sup>	0.5 <sup>%</sup>
	3 등	74 <sup>g</sup>	16 <sup>%</sup>	7 <sup>%</sup>	1.0 <sup>%</sup>
품	1 등	70 <sup>g</sup>	16 <sup>%</sup>	10 <sup>%</sup>	2.0 <sup>%</sup>
	2 등	77 <sup>g</sup>	16 <sup>%</sup>	2 <sup>%</sup>	0.2 <sup>%</sup>
	3 등	74 <sup>g</sup>	16 <sup>%</sup>	4 <sup>%</sup>	0.5 <sup>%</sup>
통일제	1 등	70 <sup>g</sup>	16 <sup>%</sup>	7 <sup>%</sup>	1.0 <sup>%</sup>
	2 등	77 <sup>g</sup>	16 <sup>%</sup>	4 <sup>%</sup>	0.5 <sup>%</sup>
	3 등	65 <sup>g</sup>	16 <sup>%</sup>	10 <sup>%</sup>	2.0 <sup>%</sup>

**2. 등급별 기준 선본**

	1 등	2 등	3 등	등의
일반벼				
품벼				

1975년 10월 20일  
국립농산물검사소장

&lt;그림 58&gt; 1975년 벼 검사 규격 안내



&lt;그림 59&gt; 벼 품위 검사 모습

2017년 읍·면별 공공비축 미곡 매입실적은 전체 수매량이 2,748천kg이었고, 대부분이 특등과 1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2등급은 37천kg에 불과하였다. 수매량은 평해읍이 729kg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성면, 근남면, 매화면 순으로 많았다. 금강송면과 북면은 수매량이 가장 적었다. 이들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 방법은 전량을 일반매입의 방법으로 수매하였다.



&lt;그림 60&gt; 1970~1980년대 추곡수매 모습

## 2) 하곡수매실적

겉보리 및 밀이 포함되어 있는 맥류인 하곡의 연도별 및 읍·면별 수매실적을 조사한 결과는 <표 279>와 같다.

&lt;표 279&gt; 연도별 하곡수매실적

(단위 : kg)

연별	합계	겉보리						
	계	1등	2등	등외	계	1등	2등	등외
1970	-	-	-	-	-	-	-	-
1975	9,050	-	-	-	-	-	-	-
1981	9,580	5,699	5,403	478	8,598	8,253	294	51
1985	1,578	1,190	386	1	1,578	1,190	386	1
1990	1,243	1,001	2,345	8	1,243	1,001	235	8
1995	245	230	16	-	245	230	16	-
2000	142	140	2	-	142	140	2	-
2005	87	71	16	-	87	71	16	-
2009	29	27	2	-	29	27	2	-
2010	-	-	-	-	-	-	-	-

\* 1981년에는 밀 982kg이 포함됨.

\* 1985년부터 단위 천kg.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1)

&lt;표 280&gt; 읍·면별 하곡수매실적(2007년)

(단위 : kg)

읍면별	겉보리			
	계	1등	2등	등외
계	79,640	76,840	2,800	-
울진읍	4,680	4,440	240	-
평해읍	1,360	1,360	-	-
북면	2,000	1,680	320	-
서면	-	-	-	-
근남면	35,080	34,160	920	-
원남면	-	-	-	-

읍면별	겉보리			
	계	1등	2등	등외
기성면	2,760	2,760	-	-
운정면	5,800	5,800	-	-
죽변면	27,960	26,640	1,320	-
후포면	-	-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08)

연도별 보리 및 밀의 수매실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겉보리 및 밀의 하곡수매는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1985년에는 겉보리의 수매실적이 1,578kg으로 최고 수량을 나타낸 이후에 1990년에는 1,243kg, 1995년 245kg, 2009년에는 29kg으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2010년부터 매입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밀의 수매실적은 1981년에 0.9톤의 수매실적을 나타낸 후에 밀의 수매자체가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 이후에 이농현상과 보리의 소비량 감소가 주 원인이다. 특히 국내에서 소비되는 밀의 대부분이 미국산 수입밀가루가 차지하게 되어 국내산 밀은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됨으로 밀의 생산기반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보리밥이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밀도 민간단체에서 우리 밀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조금씩 국내산 밀의 재배농민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산 밀을 이용한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2007년 현재 군내에서 읍·면별로 생산된 겉보리의 수매실적에 대하여 조사하면, 죽변면이 27,960kg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남면이 35,080kg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농업종사 인구 및 경지면적이 비교적 많은 평해읍과 원남면[현 매화면] 및 기성면에서는 겉보리의 수매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어민이 99%를 차지하는 후포면과 주로 산림지역인 서면[현 금강송면], 그리고 원남면[현 매화면]에서는 겉보리의 수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2008년과 2009년의 수매량은 급감하였으며, 2010년부터 하곡의 수매가 중단되었다.

### 3)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현황

정부에서는 추곡 및 하곡으로 수매된 정부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양곡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시설로 전국의 곳곳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건설하였다. 본 군에서도 1970년대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저장창고가 우리 군내에 건설되었다. 연도별 및 읍·면별로 건설되어 있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현황은 <표 281> 및 <표 282>와 같다.

&lt;표 281&gt;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의 현황

(단위 : 개소, m<sup>2</sup>, M/T)

연별	합계			농협창고			민간창고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1970	12	530	-	1	54	-	10	433	-
1975	38	1,947	7,085	-	-	-	-	-	-
1980	36	3,050	14,968	33	2,780	12,728	3	270	1,240
1985	43	3,415	15,217	35	2,933	13,191	8	482	2,026
1990	32	2,833	17,094	31	2,733	16,456	1	100	638
1995	34	9,513	15,688	33	9,183	15,074	1	330	614
2000	27	7,883	13,928	27	7,883	13,928	-	-	-
2005	25	7,534	13,311	25	7,534	13,311	-	-	-
2010	18	5,942	11,004	18	5,942	11,004	-	-	-
2013	15	4,952	9,205	15	4,952	9,205	-	-	-
2014	16	5,118	9,515	16	5,118	9,515	-	-	-
2015	16	5,448	9,983	16	5,448	9,983	-	-	-
2016	18	5,908	10,853	18	5,908	10,853	-	-	-
2017	18	5,908	10,853	18	5,908	10,853	-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lt;표 282&gt; 읍·면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의 현황(2017년)

(단위 : 개소, m<sup>2</sup>, M/T)

읍면별	합계			농협창고			민간창고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계	18	5,908	10,853	18	5,908	10,853	-	-	-
울진읍	2	660	1,246	2	660	1,246	-	-	-
평해읍	4	990	1,867	4	990	1,867	-	-	-
북면	-	-	-	-	-	-	-	-	-
금강송면	-	-	-	-	-	-	-	-	-
근남면	2	660	1,176	2	660	1,176	-	-	-
매화면	4	1,617	2,981	4	1,617	2,981	-	-	-
기성면	3	990	1,714	3	990	1,714	-	-	-

읍면별	합계			농협창고			민간창고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온정면	1	331	623	1	331	623	-	-	-
죽변면	2	660	1,246	2	660	1,246	-	-	-
후포면	-	-	-	-	-	-	-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8)

추곡 및 하곡으로 수매된 쌀, 보리 및 밀을 보관하는 창고의 현황은 1975년에 38동, 면적이 1,947m<sup>2</sup>, 보관능력이 7,085M/T이었으며, 1985년 43동, 면적이 3,415m<sup>2</sup>, 보관능력이 15,217M/T, 2017년 18동에 5,908m<sup>2</sup>의 면적에 10,853M/T의 보관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창고의 동수와 면적, 보관능력 모두 1995년까지 급격히 증가되었지만, 그 후 점점 곡물의 생산량과 함께 감소추세에 있다. 그리고 정부양곡의 보관창고는 거의 모든 창고동이 농협창고로서 민간이 관리하는 창고는 1985년 이후에 겨우 1동만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1995년 이후 사라졌다.

최근에 이르러 국내의 식량자급도가 이농현상과 농산물의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급격히 떨어져서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있었던 녹색혁명과 같은 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은 전량 우리 땅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농업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읍·면별로 설치되어있는 정부양곡의 보관창고는 총 18동에 보관능력이 10,85M/T톤에 이르고 있다. 추곡의 수매량이 가장 많은 매화면과 평해읍에 4동, 기성면에 3동, 울진읍과 근남면, 죽변면에 각 2동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매화면에서는 보관창고의 동수가 4동이며, 창고의 면적이 1,617m<sup>2</sup>, 양곡보관능력이 2,981M/T로 제일 많았고, 이상의 모든 양곡보관 창고들은 농협창고이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창고는 없었다. 이상의 정부양곡의 보관창고들은 현재 추곡 및 하곡의 수매실적에 따라 이용률이 차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창고들은 저온창고로 시설이 완비된다면 양곡뿐만 아니라 채소류 및 과실류들의 저온저장에도 활용하게 된다면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정부양곡 가공공장의 현황

정부에서 수매한 양곡은 정부에서 지정한 도정공장에서 백미로 가공하고 있다. 이들 가공공장의 현황은 <표 283>와 같다.

&lt;표 283&gt;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가공공장의 현황

연별	공장 수	원동기(HP)		생산능력(t/일)			
		전동기	발동기	정미	정맥	압맥	제분
1970	-	-	-	-	-	-	-
1975	1	-	-	2	7	-	-
1980	2	540	120	41	12	12	-
1990	2	625	-	38	19	19	-
1995	1	823	-	40	19	19	-
1996	1	823	-	20	10	10	-
1997	-	-	-	-	-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1998)

정부양곡 가공공장 수는 1994년까지 2개가 운영되다가 1995년 1개로 감소하였으며, 1996년 이후 정부 양곡 가공공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 말까지 읍·면 각 지역에서 운영되던 소규모 일반정미소도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지금은 일반 가정의 소규모 정미로 바뀌었으며, 정미소는 극소수로 감소하였다.

## 4. 농업 관계기관

### 1) 농업협동조합 현황

2017년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 수는 총 8개[군지부 1개와 지역농협 7개]이며 조합원 수는 8,187명, 직원 수는 22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에 일시적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났으나 1970년대 이후 조합 수와 조합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의 조합 수는 16개였으나, 1975년 13개, 1980년에서 1990년에 이르기까지는 10개, 2013년에는 8개, 2014년에는 다시 7개로 줄었다. 조합원 수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1970년 11,986명에서 2017년 8,187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농협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1970년 53명에서 2000년 241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228명으로 조금 감소되었으나, 1990년 이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lt;표 284&gt; 연도별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직원 수

(단위: 개, 명)

연별 및 조합별	조합 수	조합원 수	직원 수		
			계	남	여
1970	16	11,986	53	49	4
1975	13	10,910	139	107	32
1980	10	10,310	142	119	23
1985	10	10,493	156	118	38
1990	10	9,823	210	144	66
1995	9	9,426	232	163	69
2000	9	11,018	241	158	83
2005	9	9,420	220	142	78
2013	8	9,220	229	135	94
2014	7	8,993	228	138	90
2015	7	8,851	231	141	90
2016	7	8,807	226	135	91
2017	8	8,187	228	141	87
군지부	1	-	21	16	5
지역농협	7	8,187	207	125	82

출처: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 2) 주요 협동 사업 현황

농협의 주요 경제사업은 2000년 이전에는 주로 판매사업, 구매사업에 집중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판매사업과 구매사업에 더불어 생활물자사업과 공제사업에 집중되었다.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주요 협동 사업 실적을 보면 판매 사업의 경우 1975년도 13억 33백만원에서 2014년 167억 5백만원으로 최대로 증가했으나, 2017년 126억 20백만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사업의 경우 1975년 13억 32백만원에서 2013년 314억 21백만원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68억 9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추가로 조사된 생활 물자, 가공 및 창고 사업의 경우 2017년 생활물자는 268억 31백만원, 가공 사업의 경우 4억 59백만원, 창고 사업의 경우 2억 26백만원, 운송 사업의 경우 1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의 경우 1985년 73억 49백만원에서 2000년 1,880억 27백만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년 257억 6백만 원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85&gt; 연도별 농협협동조합 주요 경제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별 및 조합별	주요 경제사업 실적							
	판매	구매	생활물자	가공	창고	운송	공제	이용기타
1970	-	-	-					129
1975	1,333	1,332	-					26
1980	2,822	1,344	-					2
1985	4,257	666	-				7,349	-
1990	4,051	2,856	-				44,504	-
1995	8,784	5,959	-				146,495	7
2000	14,688	7,444	10,772	292	287	66	188,027	-
2005	11,363	7,537	12,319	334	327	42	18,503	22
2013	15,219	31,421	24,025	873	65	16	30,565	684
2014	16,750	30,038	24,281	609	94	12	30,479	695
2015	12,958	29,366	26,241	786	152	17	29,518	884
2016	12,940	25,821	26,036	561	-	-	25,979	-
2017	12,620	26,890	26,831	459	226	15	25,706	747
군지부	-	-	-	-	-	-	-	-
지역농협	12,620	26,890	26,831	459	226	15	25,706	747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

### 3) 금융 실적

경상북도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융자 실적을 보면 1970년 2억 90백만 원에 불과하던 융자실적은 2017년에 총 4,181억 17백만 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1,44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여신실적 중 금융 자금은 3,894억 74백만 원이며, 재정 자금은 286억 4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말 현재 예금 잔고는 10,811억 29백만 원이며 이중 저축성 예금이 9,083억 67백 원, 요구불예금이 1,727억 62백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1970년 이후 군내의 연도별 농협협동조합의 융자실적 및 연말예금잔고 실적을 조사한 결과는 <표 286>과 같다.



&lt;표 286&gt; 연도별 농협협동조합 융자실적 및 연말예금잔고

(단위 : 백만원)

연별 및 조합별	연중 여신실적			연말 현재 수신고잔고		
	계	금융자금	정책자금	계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1970	290	253	36	298	179	118
1975	1,033	873	159	181	735	433
1980	7,772	5,384	2,388	6,046	4,682	1,363
1985	17,611	10,908	6,702	19,568	14,111	5,457
1990	153,027	106,151	46,875	64,555	45,349	19,206
1995	178,503	168,299	10,203	185,046	165,227	19,819
2000	243,059	200,951	42,108	354,563	318,566	35,996
2005	293,417	202,480	90,937	508,523	440,230	68,292
2013	325,114	284,224	40,920	1,002,138	865,782	136,356
2014	324,720	286,062	38,658	788,391	652,149	136,242
2015	361,202	306,936	54,266	962,249	813,665	148,584
2016	378,608	344,226	34,382	616,291	487,784	128,507
2017	418,117	389,474	28,643	1,081,129	908,367	172,762
군지부	140,552	128,480	12,072	547,445	489,386	58,059
지역농협	277,565	260,994	16,571	533,684	418,981	114,703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2018)